

김강운 국장님, 지난 9월 1일 우리 연구회에서 조형물 설치의 기본방향에 대해 논의한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립니다.

1. 내용에 관한 기본 컨셉은 자연사 박물관 유치 염원의 표현에만 두어서는 안되고 환경, 문화, 예술 도시로서의 양평을 건설하려는 양평군민의 의지를 담아내는 내용이 되어야한다.
2. 외양에 관한 기본 컨셉은 대지, 자연을 압도하며 솟아오르는 모뉴멘탈리티를 지양하고 나무, 숲, 물과 더불어 조화를 이루는 자연 순응, 환경 친화적 내용이 되어야한다.
3. 비 영구적인 설치물로서 후에 벽돌로서 재활용이 되게한다.
4. 설치과정 그 자체를 이벤트화하여 환경, 문화, 예술을 아끼는 군민으로서의 자부심과 그 정체성을 고양시키는 계기를 삼는다.
5. 어느 정도의 예산이 확보될 수 있는지 확인한다.
6. 양평 거주 작가들은 이 프로젝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본다.
7. 특별히 이 조형물 설치를 원하는 곳(면이나 동네 기타)이 있는 지 알아본다.
8. 어린이, 노인, 어린이들과 같이 작업을 할 때 협조가 가능 한지 알아본다.

프로젝트 참여 연구회 회원 명단.

홍보라 (예술행정및 공공미술 전공, 공공미술 그룹 오존 회원, 문화정책개발원 공공 근로 사업과 연계한 공공미술연구 프로젝트 연구원으로 참가)

배영환 (설치미술가, 부산 민주화 기념관 공공미술 프로젝트 참여)

김태현 (화가, 성남시및 송파구 공공미술 프로젝트 참여)

박삼철 (아트 컨설팅 서울 대표)

이 섭 (아트 컨설팅 서울 연구원)

김용익 (화가, 경원대 교수)

조지은 (화가, 성남시 및 송파구 공공미술 프로젝트 참여)

양평 조형물 프로젝트 9월 9일 회의 내용입니다.

1. 9월 17일(금) 현지답사 가능 여부(김강윤 사무국장과 의견교환)
2. 각자의 아이디어 검토 및 토론 (계속 아이디어 스케치하고 수시로 모여 토론하기로)
 - 이벤트화를 어떻게 실현 시킬가에 대한 논의
 - 물 이미지는 필수적인데 그 시각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
 - 기원과 바램의 의미, 쉼터의 의미, 의미있는 장소의 의미, 등 그 기본적인 컨셉을 우리의 옛 서낭당에 둔다. 그러나 그 개념에만 컨셉의 아이덴티티를 두는 것이지 외양을 빌어오는 것은 아니라는 데 의견 일치.
3. 이 프로젝트의 실행 과정과 그 결과물을 이 모임이 수행한 하나의 창작물로 생각하여 텍스트와 비주얼 이미지로 기록을 철저히 남기어 전시에 출품하거나 팸플릿을 만들어 홍보한다.

양평 벽돌조형물의 기본적인 개념

- 우리나라의 옛 서낭당의 개념을 도입, 자연사 박물관 유치와 환경도시, 문화예술도시 양평을 건설하기 위한 바램과 꿈을 표현한다.

서낭당은 무언가를 기원하는 곳, 나그네들의 쉼터, 이정표의 구실을 하는 장소로서 기원의 의미를 담아 던진 돌무더기와 신성시되는 서낭목, 우물과 나무그늘 등으로 이루어진다. 이 서낭당의 요소들은 양평 벽돌 조형물이 갖추어야 할 모든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본다. 군면 등의 연원을 담은 팔각장의 벽돌이 돌무더기이고 이 조형물이 서므로서 그곳은 서낭목이 서있는 곳과 같이 구별되고 의미있는 공간이 된다. 무엇보다도 대지를 거스르고 치솟는 기념비적 위상이 아니라 서낭당과 같이 물과 나무가 어우러진 자연친화적 위상을 갖추므로서 환경도시 양평의 이미지를 잘 드러낼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최근 환경조형물의 세계적 추세인 “우러러 쳐다보는 미술품이 아니라 사용하는 기능을 갖춘 미술품”이라는 개념을 도입 하므로써 여타의 조형물과 차별성을 꾀한다.

김강운 국장님, 99년 10월 18일 회의 내용입니다.

1. 연구인원을 더 보강하여 작품의 질적 완성도를 꾀한다.

보강인원 명단

- 김준 : 화가, 부산 민주화 공원 프로젝트 참가.
- 홍지연 : 설치 미술가
- 이형주 : 무대 미술가, 부산 민주화 공원 프로젝트 참가.

2. 군 관계자들과의 회의에서 지적된 모뉴멘탈리티의 부족을 보완하되 15 - 20m 정도의 탑을 만든다. 그 탑은 전망대의 구실도 할 수 있도록 설계되며 필요하다면 자연사 박물관 유치에 염원하는 조형물이라는 글이 들어가도록 한다.(이 모뉴먼트는 이 프로젝트의 기본 개념인 서낭당에 대입시켜 보면 서낭목으로 해석된다)

3. 자연사 박물관과 관련된 이미지들은 페인트로 그리는 벽화형식을 탈피하여 일종의 부조형식으로 하여 벽감에 넣는 방식을 고려한다.

4. 전체적으로 모뉴멘탈리티와 소규모 공원으로서의 기능이 무리없이 조화되도록 디자인한다.

5. 이 조형물이 한국 공공 미술의 모범적인 사례가 되도록 참여작가들의 명예를 걸고 최선을 다한다.

국립 자연사 박물관 유치를 염원하는 조형물 설치계획

- 장소 : 체육관 앞 광장의 동쪽 끝 (지름 57m의 반원형 지역)

-개념 : 군민의 의지로 모아진 8만장의 벽돌을 사용하여 만들며 자연사 박물관 유치를 염원하는 내용과 환경, 문화예술 도시로서의 양평을 건설하려는 군민의 의지를 담아낸다.

외양은 모뉴멘탈리티를 지양하고 나무와 숲, 물과 더불어 조화를 이루는 환경 친화적 모습이 되도록하며 “우러러 보는 미술품”이 아니라 “사용하는 기능을 갖춘 미술품”이 되도록한다.

설치과정을 이벤트화하여 환경, 문화예술을 아끼는 군민으로서의 자부심과 정체성을 고양시키는 계기를 삼는다.

-예산 : 군민성금 250만원
군지원금 1500만원
계 2000만원

-시행일자 : 기본설계 완료 1999년 11월 30일
시공완료 2000년 4월 30일